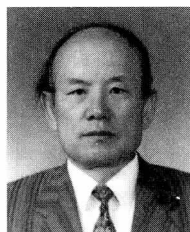


올무에 걸린 노루 풀어주던 날



송 재 식

〈원주대성중 교사〉

나는 산이 좋아서 산에 자주 오른다. 산행을 즐겨하면서 인생을 배우고 나뭇대로 산을 아끼면서 살아간다.

아름다운 식물의 꽃 향기 약초 버섯 나무들의 사계절 변화와 수많은 곤충으로부터 산 짐승의 생태에 이르기까지 정말 산은 무궁무진한 자원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고 삶에 활력을 주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산의 고마움을 모르고 몰지각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 속이 너무 상하다.

산촌의 사람들은 생계의 수단이었지만 산나물 약초 버섯

등을 마구 채취한다. 또 야생화 수집가들은 희귀한 식물에 델바이스를 비롯 이끼류를 마구 채취 멸종시키고 나무도 함부로 베고 특히 귀한 나무를 약이 된다고 엄나무, 마가목등을 마구 베어가는 행태를 보인다. 높은 산에 오르다보면 살아서 천년 죽어서 천년을 견딘다는 주목이 함부로 베어져 있는것을 볼 수 있다.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그 뿐인가 동물 세계의 산새나 짐승들도 사람에게 의해 수난을 당하고 있다.

동물들의 생활을 관찰하다 보면 깊은 산중보다는 인가에

서 그리 멀지않는 곳에 살면서 사람과 알게 모르게 연계하여 사람과 공생공존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산짐승들도 이곳 저곳을 떠돌아 다니며 사는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살기좋은 곳을 찾아 정착하여 사람처럼 다니는 길이 정해져 있다. 산촌 사람들은 동물의 생태를 비교적 잘 알고 있어서 동물이 다니는 길에다가 차우나 울무를 놓아서 토끼 노루 산돼지를 마구 잡는 작태를 일삼고 있다. 토끼는 여러마리 걸려 죽은것을 볼 수 있고 인가 근처 야산에 노루는 다행히 걸려서 죽지 않은것을 발견하여 살려준 일

이 두차례나 있다.

지난해 말경 치악산 부곡지구에서 산을 오르는데 민가에서 500m지점 야산 숲속에서 목이 울무에 걸려 버둥대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나무토막에 줄이 매여 목이 매인채 도망가지 못하고 버티다가 나를 보고 공포에 질려 버티는 소리에 나도 놀랐다. 여러번에 걸쳐 버티다 목이 조여져서 숨이 막혀 쓰러져 정신을 잃은것 같았다. 쫓아가서 목을 풀어주니 숨을 다시쉬고 배를 만져 심호흡을 시켜주니까 한참있다 쉬면서 정신을 차려 비틀거리다가 산으로 도망갔다. 살아가게 돌려



울무에 걸려 나무토막을 끌고 다니다 기진맥진해있는 노루



올무에서 풀려난
노루. 놀란 탓인지
오도기도 못
한다.

보내고나니 마음이 흐뭇하고
즐거웠다.

또 지난 선달그믐날 망년산
행으로 태기산을 오르는데 첫
눈이 내렸다가 양지에는 눈이
다 녹았고 응달에는 쌓인 눈이
그대로 있었다. 응달 눈위에
작은 다람쥐, 청설모, 토끼, 노
루등, 수많은 산 짐승들의 발
자국들이 찍혀 있어 산짐승들
의 천국으로 생각되었다. 다시
한 모퉁가지를 지나다 보니 발
자국이 느닷없이 사람 주먹보
다도 크게 눈에 띄었다. 대낮
이나 홀로 걷는 산행길은 티없
이 맑은 공기에 산새마저 떠났
는지 적막한 산 고을에 나무가
지 사이로 햇살이 간간이 들어
올 뿐 깊은 산속에서 내 발자

욱 소리뿐이었다.

속세를 떠나 잠시 나만의 산
행 길은 크나 큰 즐거움이었다.
많은 짐승들의 발자욱을 보
면서 혹시 큰짐승이라도 만나
면 하는 두려움도 생각하며 걷
는 순간 길옆에서 부시럭 거리
는 소리에 머리끝이 하늘로 솟
을만치 소스라치게 놀라서 보
니 또 노루가 올무에 걸려서
도망 가려고 버티고 서 있는
것이다. 놀라기는 했지만 순간
적으로 저 노루를 어떻게 살려
줄 것인가 하며 서서히 다가가
니 노루는 두려운 눈으로 나를
쳐다보다가 도망가려고 발버
둥치는 것이다. 마음 속으로
「너는 나를 잘 만났어 안심해.
너를 어떻게 살려줄테다」 생각
하고 접근해보니 이번 노루는
올무가 목이 아니고 가슴에 걸
려서 도망가려고 나대고 있었
다. 갈등이 생기는 순간 잠시
진정해 가며 여유 있게 사진도
찍고 나서 누가 같이 있었으면
좋으련만 혼자서 접근을 시도
하니 노루는 최후의 수단으로

더욱 나대는 것이다.

줄을 풀어 주려고 접근하니 나에게 달려들어 순간 혹시 물리면 다치지나 않을까 망서리고 후퇴를 하였다. 또 다시 접근 몇차례 반복하다가 노루가 지친것도 같고 용기를 내어 나무토막에 매인 철사줄을 풀어 주었다. 노루는 놀랐지는 힘이 빠졌는지 당황했는지 풀어 놓아도 도망을 갈 줄 모르고 서 있었다. 이상한 일이다. 가라해도 갈 줄 모르고 서 있다가 앞발로 땅을 세번이나 굽더니 발길을 옮겨 도망가는 모습은 정말 두번째 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주었다.

순간 나 오늘 망년산행 잘 왔구나, 보람있는 일을 금년 마지막날 했으니 하고 흐뭇한 마음을 가지게 됐다.

올무를 설치해 놓고 노루를 잡으려 한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고기가 먹고 싶어서일까 정력에 좋다니가 피를 먹으려 했을까?

선진국 공원에 가면 각종

산짐승과 사람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살아간다고 들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을까. 우리 다같은 생명체로 세상에 태어났지만 잘못하고 약한 동물을 사람이 이렇게 잡아서 되겠는가.

사람이 왜 이렇게 악랄한것인가 모든 사람이 이렇게 잡으면 산 짐승들은 사람에 의해 멸종될 수도 있고 생태계는 파괴되고 말것이 아닌가

자연이 인간에게 힘과 능력을 준만큼 인간답게 지혜롭게 살아야 할 것이다.

동물이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게 인간이 마음을 베풀어서 어우러져서 살아갈 수 있는 자연과 인간의 한마당이 이루어져야 될것이다.

당초 목적지로 정한 산행길을 포기하고 올무에 걸린 노루를 풀어주던 날 나의 하산길은 그 어느때보다 발길이 가볍기 그지 없었다.▲▲